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수능 시험 되길”

2025 수능… 수험생 응원 풍경

올 ‘수능 한파’ 없어 포근한 날씨 수험생들 새벽부터 시험장 찾아 학부모들 “자식보다 더 긴장돼” “하던 대로만 하고 와” 교사 응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광주 시험장 곳곳에서는 수험생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차분한 입실 풍경이 연출됐고, 일부 수험생은 준비물을 놓고 오거나 시험장을 착각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사장까지 이동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한 마음을 맘껏 표출하며 환호했다.

●모두가 응원하는 시험장 풍경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해”, “수험표랑 시계 잘 챙겼지?”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시험장에는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광주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수능 한파’가 없는 포근한 날씨를 보여 통패딩으로 중무장한 수험생의 모습이 익숙했던 예년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차림에 걸음을 쟁겨 온 수험생이 많이 보였다.

마지막 점검을 위한 요약본과 도시락을 든 수험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섰고, 정문 입구에서는 부모님과 포옹하며 ‘떨지 말고 잘 보고 오라’는 응원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오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광덕고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으며, 교복을 입은 후배들 역시 선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힘을 실었다.

신재현(석산고 1년)군은 “선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고사장을 찾아왔다”며 “열심히 노력해왔던 만큼 선배들이 수능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광주시교육청26지구 제5시험장이 마련된 광덕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를 안으며 격려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수험생들도 목표한 점수 달성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오동원(인성고 3년)군은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수학 과목만큼은 누구보다 잘 치를 자신이 있다”며 “막히는 문제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응하겠다. 꼭 원하는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힘차게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문 주변에서는 교사와 부모들의 ‘시험 잘 봐’, ‘긴장하지 마’라는 수험생들을 향한 격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와 포옹한 뒤 교문으로 들어서던 이수미(대광여고 3년)양은 “긴장은 되지만 후회하지 않게 하던 대로만 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불수능이 예상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힘을 얻었다. 날씨도 화창하고 컨디션도 좋아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고사장에 들어섰다.

이양의 어머니 박효정(53)씨는 “늦둥

이 딸이라 2명의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10년 만에 다시 자녀가 수능을 보는 건데 딸보다 내가 더 떨리는 것 같다”며 “딸이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노력한 결과가 오늘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수능이 끝나고 나오면 너무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 새벽부터 응원에 나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을 맞잡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교사들의 표정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해 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김석형 설원여고 3학년2반 담임 교사는 “시험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상시처럼 침착하게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건넸다.

●수험표 깜빡·시험장 잘못 찾기도 준비물을 놓고 오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아오는 해프닝도 이어졌다.

입실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발길이 분주해진 가운데 교문 앞에서 가방 속을 이리저리 뒤지며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당황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 “수험표가 없어, 어떡하지?”라고 외치는 학생의 모습에 주변 학부모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광주시교육청26지구 제5시험장인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며 자습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교사들도 덩달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다. 하지만 잠시 후 가방 구석에 깊숙이 넣어 두었던 수험표가 발견되자 주변에서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학생도 한숨을 내쉬며 다시 평정심을 찾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오전 7시50분께 광주 동성고에 가야 하는 군인 재수생이 차량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서 대성여고로 오게 됐다.

정문에 들어섰다가 시험을 볼 수험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며 내려온 재수생을 발견한 경찰은 급히 경찰 관용차를 몰고 와 3분 거리의 동성고까지 그를 긴급 이송했다.

광주 남부경찰 소속 김민준 경사는 “수험장 간 거리가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판단해 차량으로 이송하게 됐다”며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인데 늦지 않게 입실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모든 수험생이 전부 본인이 준비했던 대로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능 끝나고 해방감에 자유 만끽

탐구 영역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살레시오여고 교문 앞은 수험생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오후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학부모들은 우산을

챙겨 든 채 자녀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험이 끝난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달음에 달려 나온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느낀 듯 밝은 표정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

1등으로 시험장을 나온 조영빈(전남여고 3년)양은 “12년간 공부를 한 게 이렇게 시험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도 하지만 너무 후련하다”며 “오늘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수험표 확인으로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준비한 꽃다발을 품에 안은 구여진(동아여고 3년)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다”며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과거의 나에게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고 싶다”고 해방감에 설레는 모습이었다.

구양의 어머니 위경진(43)씨는 “수능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지만 결코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이를 계기로 더 굳건하게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이겨내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모든 수험생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수능 출제경향 분석’

■1면서 계속 국어·수학에 이어 영어 영역도 지난해보다 쉬운 난이도로,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개념을 다루는 길러문항이 배제되면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영어 영역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절대 평가다. 지

난해 영어 1등급 비율은 4.71%였으며 올해 수능 영어의 EBS 교재 연계율은 5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들의 역할과 관행을 만드는 규칙을 이해하고 빈칸을 추론하는 34번과 특정 조류의 행동 특성과 감정 전이를 다룬 37번 등이 변별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수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정은 26일 발표되며 성적은 다음달 6일 통보될 예정이다.

‘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 접수

국정감사 기간 세 차례 골프 라운딩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은 50대 광주시민 A씨가 지난달 말 민형배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달 6일 대기

업 임원들과 나주에서, 13일에는 광주에서 지인들과 가진 라운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두차례의 라운딩 후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 회동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이뤄진 나주의 골프장과 광주 골프장의 그린·카트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만찬 비용 등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 중이다. 윤준명 기자

“검찰 방탄정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열여 전남대 학생 15인 시국선언

광주·전남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광주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와 회의 등이 연이어 열렸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시국회의에서는 현재 국면을 살펴보고 개혁 과제와 행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검찰 독재의 국가화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과 국정 농단의 흑도 일고 있다”며 “시민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획 회의를 통해 정리한 7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개혁 과제는 △권력 구조 전면 개편 △민생 중심 사회 경제 개혁 △특권 질서 해체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구조적 불평등 타파 경제 개혁 △평화의 나라 △차별·소외·혐오 없는 공동체 구축 △환경 문제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도 재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인문대학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정권을 ‘방탄 정권’이라고 지

칭하며 “대통령 배우자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2시에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사진·윤준명 기자